내실있는 여름농활

2000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반미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전여대협 여름농활

보내는 기름: 6기 전여대협
받는 즐거움: 전여대협 산하 각급 단위 학생회 및 여학생회
용 도: 2천년 내실있는 농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 타: 여학생회가 없는 단위에도 꼭 읽자
!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운 반미통일의 기운으로
2천년 여학생운동 대중화와 뼈를 깍는 농활혁신의 자세로
새내기 헌내기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됨으로
알알이 패는 곡식처럼
내실있는 여름농활을 만들어가자

내리보시

1.들어가며
2.기간여성연대사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3.2천년 여름농활의 의의와 중요성 및 목표
4.여름농활 준비 어떻게
5.여름농활 본활동
6.여름농활 핵심과제
7.시기별 흐름
8.교양자료

들어가며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50만 여학우 백만학우가 함께 모여서 성황리에 치뤄낸 전여대협 출범식의 감동을 내리는 빗줄기와 뜨거운 여름의 태양열과 함께 간직하고 50만 여학우 2천만 여성의 등대지기로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투쟁에 여념이 없으리라 봅니다. 농활은 학생운동단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대사업중 유일하게 그 끈을 놓지 않고 전개되어온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학생회에서 벌이는 사업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사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서 농민들과 근로활동을 함께 함으로서 그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을 통해 느끼고 대중적인 학우들이 광범위하게 농활에 묶이면서 학생회의 강화로 귀결되면서 농민들과 함께 공통의 사안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실로 입체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학단위에 있어서도 농활은 당당한 농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성농민들의 삶을 배우고 여성농민과의 연대주체를 세워내면서 여학단위, 여농단위의 주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당면 투쟁을 함께 풀어가는 유력한방도로 농활을 준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농활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진행된지 벌써 14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간 많은 성과를 빛내어온 농활이지만 최근들어 농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우리 스스로도 관성으로 준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학생회 역량의 약화와 농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요구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요인이기도 하지만 자못 우리 스스로 농활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데 예전과 같은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세의 문제가 더 큰 듯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2천년 6월의 정세는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사고 남북화해분위기와 조국통일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이와 반대로 한반도의 영구분단과 식민지적 착취를 강화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여전히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북을 모략하고 전쟁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매각과 이를 바탕으로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악화는 여전히 이땅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우에 수입개방으로 인한농축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실질적인 농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정상회담등으로 통일을 진정 바라는 듯 보이나 국가보안법을그대로 존속시키고 한총련과 범민련에대한 탄압을 그대로 벌여내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을 고묘히 탄압하면서 여전히 반민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미국에 아부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가 될거라는 장미빛 미래공약과는 무관하게 2천년 들어 더욱 어려워진 고용조건속에서 차별적인 정리해고 실업위기가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가정폭력등 성폭력의 각종 기승하는 범죄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민중들에게 있어서 민중생존권의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제출되고 있고 작든 , 크든 전체 투쟁의 대열에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의 정세는 여성민중들의 더욱더 강위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지금의 이런 투쟁을 펼쳐내는데 있어서 모든 것은 여성주체를 강화하고 여성운동조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농활은 봄농활의 성과를 이어받아 기간 연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저 중요성을 당위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구체적인 투쟁의 목표를 내오고 단위별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농활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한해 두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이 문건에 강조하고 외쳐 댄다고만 해서 풀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혁신은 우리가 농활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실천방도를 실직적으로 내오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단위별 농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올해 실정과 상황에 맞는 농활계획을 세워내면서 작은 변화를 일구어내 봅시다.
9박 10일이라는 대중의식화의 유력한 공간을 짜임새있게 계획해서 여학생운동을 강화하고 여성농민회를 강화하는 자리를 만듭시다.

[2]기간 여성농민연대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4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농활이 근래에 들어서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여성농민연대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아 온 농촌활동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특히 여성농민여성운동과 여성농민회에 있어서 농활은 회원대중을 만나 조직을 확장하고 질적 발전을 꾀하는 사업이며, 그 성과도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 되었습니다. 89년부터 창립되기 시작했던 지역 여성농민회의 대다수는 농활을 성과 있게 수행한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여농에 있는가, 학생측에 있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보다도 양자 모두의 결함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 봅시다. 극복대안은 뭐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농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시다.

1. 농활을 보는 올바른 관점

(1) 여성농민에게 있어 농활은 조직강화, 조직 확장의 초석입니다.

농활은 여성농민과 학생이 여성농민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모순된 처지를 타파하도록 만드는 연대사업의 핵심입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연령의 많은 여성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결합의 정도에 따라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면부지이며 여성농민운동과 여성농민회에 대한 설혹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농민일지라도 학생이라는 공식적인 소개자를 통해 인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의 교육, 선전 등 한꺼번에 다양한 사업을 펼쳐 총체적인 조직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개별 활동가들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농활 기간의 방문은 이후 조직사업의 재산이 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도 높은 노동도 무시, 봉건적 억압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농민에게 여성농민회를 알림으로서 조직의 힘을 깨닫도록 하는 목적 의식적인 활동이 곧 농활입니다.

(2) 학생에게 있어서 농활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피부로 느끼는 체험의 장입니다.

전체 농민문제와 더불어 여성농민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만들어 가는 장입니다. 그 동안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요구해오던 민족농업사수투쟁이나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투쟁 등 농민문제 전반의 것을 포함하여 이제는 여성농민들이 특수하게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결의를 다지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노동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배우고 학생대중을 교양, 학생운동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뚜렷이 해야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여성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점이 담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은 보완해가며 동지로서의 굳은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학생들에 대해 불신하고 있거나 궁금해하는 여러 문제제기들을 육체적인 친화로서 설명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농번기 동안에 방치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농민인 부모에 대한 긍지를 불어 넣어주고 교양 함으로써 선도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기간 농활에 대한 평가

농활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고 일정에 맞추어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올 농활도 예년의 모범을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 단위 실정과 변화된 현실에 맞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연대사업의 방도 및 내용이 부재합니다.

현재 각급 학생회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학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중앙에서 나오는 문건이 자기 단위의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다 는 비판을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중앙은 전체적인 조직 현황과 상황에 근간 하여 일방적인 방향을 내오기에 단위 현실에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앙의 일방적인 내용을 단위현실에 맞게 창조적 적용하여 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농활을 끝내고 오면 우리 마을에는 농민회 사람이 없어서, 부녀회장님이 소극적이어서 아무 것도 못했다는 식의 평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단위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 맞게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껏 농활의 내용 또한 변화하는 현실과 조건에 맞게 달라지고 첨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법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농활은 총체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와 교양, 대중들을 설득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너무 급박하게 꾸려낸다는 점입니다.

급박하게 꾸려낸 농활은 필연적으로 주체준비와 동원, 프로그램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성적이고 준비가 미흡한 농활은 여성농민회 조직과 학생조직의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성과를 내오지 못했으며 농활을 연례행사쯤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3) 여성농민운동과 여성농민반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농활에 있어서 여성농민과 여학생회의 역할과 해야할 일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일꾼이 없는 단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여학생회 일꾼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여성농민회에서도 학생들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주체적으로 여학단위를 견인하고 지도하려는 목적 의식성 부족 또는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여성농민 대중에 대한 애정만을 강조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양하고 주체가 없으면 발굴, 육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연대사업일꾼이 있는 단위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대일꾼들이 없는데 어떻게 농활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주체가 없어도 농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활시기가 임박해지면 저희들은 부랴부랴 주체를 꾸리고 작년농활을 평가하고 올해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활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연대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더욱더 큰 정치조직적 성과를 이룩할 수 없으며 힘들고 의례 하는 식의 농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학단위의 경우 연대사업의 주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겸임하여 연대사업을 받아 안게 됨으로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총화와 후속작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농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모범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과, 한 주체에만 머물고 그 이후에도 총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가 사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는 대부분 농활 이후 총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평가하고 장기적인 전망과 구도 속에서 농활계획을 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농활을 잘 가져가기 위한 혁신 내용

(1) 여성농민운동과 여학단위의 농활에서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농활이 여성농민운동과 여학생운동조직 활동의 엄연한 장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농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합시다.

벌써 여러 해째 농활을 수행해왔던 간부이던지 아니면 작년에 한번 가보았던 간부든지 간에 농활에 대해서 갖게 되는 많은 생각과 평가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사업을 잘 하려면 먼저 과거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급히 단위별로 농활에 대한 원초적 질문부터 문제점, 성과점 등을 명확히 되짚어 봅시다.

(3) 여농학 연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체운동의 변화된 지형에 맞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활에 있어서 전국민이 함께 하는 범국민 농민활동 등 다양하게 준비해 봅시다

(4) 반드시 지구와 학교 주체는 물론이거니와 학과의 주체를 미리 준비하고 반드시 세워냅시다.

현재 전여대협 중앙에도 연사주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배 째라 식의 책임 없이 준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기층 단위와 상층 단위가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보완하여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대학에서 책임 있는 주체를 세워냅시다. 각 대학마다 연사일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간부가 겸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봄 농활 때까지 단여, 과주체 까지 세워봅시다.

(5) 제반 농민문제뿐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여성농민의 현실 및 과제 등 다양한 교양거리로 우선 주체들부터 여성농민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학습 및 다양한 준비를 해봅시다.

[3]2천년 여름농활 여성농민연대 활동의 의의와 목표

1.여름농활의 의의와 중요성

(1)농촌의 현실, 특히 여성농민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여성민중의 고통을 알아가는 체험과 결의의 장으로

책과 신문에서 보는 민중의 고통의 아니라 맥둔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처럼 직접 느끼면서 조국의 현실과 여성민중의 고통을 알아가는 속에서 주체의 의지를 높여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머님들의 삶을 직접 직시하면서 여성운동 및 여성해방에 대한 의지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2)여학생회 조직을 강화하고 운동대중화를 실현하는 유력한 공간으로

농활을 조직화 하면서 농활 활동을 하면서 여성민중의 삶을 배우고 지금 당면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농활을 직접 참여하는 일꾼들이 단련되고 학우들이 의식화 될 수 있습니다. 전여대협 총회와 출범식 그리고 각지역과 대학에서 기간 별이 대중사업속에서 함께한 여학일꾼들과 학우들을 여농주체로 꾸리면서 여학생회 조직을 튼튼히 강화하는 공간입니다. 여학생운동을 시작한 일꾼들 가운데서 여농만 활동이 계기가 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학단위가 없는 단위도 농활 때 만큼은 여성농민반 주체를 세우려고 하고 실제 활동을 펴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농반주체로 묶여진 여학일꾼들을 잘 교양하고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어 여학생회의 조직역량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합시다.

(3) 여성농민과의 기층에서부터의 광범위한 연대로 여농학 연대의 틀을 강화하는 자리로

전여대협과 전여농 모두 조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여학생회 단위가 없는 대학도 있고 총여학생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층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여농의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주체마다 준비정도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보니 실지로 전일적인 연대투쟁이 이루어지기에 양조직의 현황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농활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각 조직의 주체를 세워내고 어렵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방도를 모색하여 풀어내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연대사업의 관점일 것입니다.

9박10일이라는 여성농민과 학생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 가기에 서로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 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여성농민들은 학생들과의 연대속에서 여성농민의 삶의 본질을 읽을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상황이 어렵고 투쟁내용이 합의되기 어렵다는 조건타발에 머무르지 말고 기층에서부터 1대일 만남을 강화하고 이후 후속작업을 통하여 조금씩 발전시켜 가봅시다.

(4)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의 투쟁 내용을 여학우 여성민중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비록 사는곳이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이 다를지라도 여성민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땅의 모순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같을 것입니다.농활이 여성농민의 문제를 체험함과 동시에 여성에게 이러한 억압과 모순을 안겨주는 근본원인에 대하여 함께 시각을 같이하며 그러한 공통인식을 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여성민중들에게 반미투쟁 반일투쟁, 반김투쟁을 해야한다고 강변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사례와 참신한 의식화방도로 자연스럽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민특위
-일본군위안부문제 3자 연대해결
-성폭력 매춘의 문제
-여성민중생존권문제

(5)향후 통일투쟁을 합의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나라 이민족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과제인 통일은 농활기간에서도 꾸준히 가져가야할 내용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그리고 지난해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이어 통일에 대한 주체는 이제 단순히 학생들만이 아니라 4천만 민중 그가운데 절반인 여성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어느때보다 이야기가 잘 될 것입니다. 여성농민의 삶과 여학우들의 삶이 참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고 8/15 범민족대회때 여성농민들과 손을 잡고 참여할수 있도록 만들어갑시다.

2.여름농활의 일정

반미자주화의 해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3. 여름농활 목표

(1)여름농활 여성농민반 주체 및 분반원을 광범위하게 꾸려내고 교양하여 여학생회강화 및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자
(2)기존의 관성과 나태를 갈아엎고 창조적인 내용과 실천으로 농활의 혁신을 안아오자.
(3)기층에서부터 상층까지 여성농민들과 1대일 만남을 강화하여 연대사업의 정형을 만들어가보자.
(4)당면한 여성운동의 과제와 통일투쟁의 내용을 여성농민의 과제와 더불어 함께 합의해 들어가자

[4]여름농활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가 농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준비과정이 잘 되면 그 농활을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 이상은 성과적인 농활입니다. 농활 준비에 박차를 가합시다.

(1) 주체를 세워내자

주체를 세우는 것만 잘해도 농활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농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사람이 없어 여농주체를 꾸리지 못하는 경우, 농활 직전에 주체가 꾸려지기도 하고, 꾸려졌다손 치더라도 활동 목표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채 농활을 수행하여 아줌마들과 술 마시고 논 기억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유야 관성과 학생회의 자체 역량 약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마련 정도에 달려있습니다.

농활은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첫째로 일꾼을 단련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입니다.
책으로 배우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구체적 생활 속에서 느끼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일꾼들 속에 사라져 가는 계급의식과 민중성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구요.

둘째로 대중을 조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모든 사업은 조직강화가 기본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으로 구체적 성과가 남아야 합니다. 농활을 가는 팀에서는 여하튼 여농반 주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단대 여학생회라든가, 기층토대가 약한 단위는 이런 사람들을 준비에서부터 후속작업까지 최대한 교양하고 조직화하는 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넓히고 사람을 남길 수 있음
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주체를 어떻게 내올 것인가?
학교단위의 상황에 맞게 주체를 내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농과의 연대활동에 있어 중o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년을 바라보는 속에서 여학생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주체를 세워내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주체
농활이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기에 농활의 주체는 여농과 논의 속에서 농활 전반을 기획하고 단위 교양과 지도, 총화를 할 수 있는 지도력과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한 주체에게만 모든 실무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고민의 주체를 정하고 나머지 간부들은 여성농민반 교양, 실무준비를 분공하여 함께 합시다.

▶단위 여성농민반 주체
단위에 여성농민연대사업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려는 주체가 있는 경우
(단위 여학생회 일꾼의 경우)
해마다 제기되는 여농학주체 문제는 전년도 농활의 총화가 사람으로 되지 못하여 단위에 여학생이꾼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학일꾼이 있다면 이 사람만큼은 주체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며 이후 후속작업까지 진행하는 속에서 튼튼히 단련시킵시다.
(여학생회 일꾼이 없는 경우)
여학생들 중에 여성문제나 여학생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학생만 있는 경우에는 남학생을 주체로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들과 잘 놀고 재미있다고 주체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성문제에 대하여 일정정도 호의적 관심을 기지는 사람으로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중앙의 교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 단위 주체 내지 단위별 주체를 세울 때는

우선 군 단위 주체부터 먼저 선정합시다.

단대 별로 한 군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농활지역에 따라 군 주체를 먼저 정하고 단대 별 주체를 배치하는 식으로 만듭시다. 가능하면 단위 회장님을 군 단위 주체로 선정해 봅시다

리 또는 마을 단위 주체는 총화 하는 방식에 맞게 선정합시다.

■주체의 활동방식

▶대학 중앙과 군 단위 주체

도여농과 각 군여농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한다.

실제 대학마다 군마다의 상황이 상이하므로 가능하면 군농이나 도농에 학단위 주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다. 여성농민회가 없거나 특별히 총화하기 어렵더도 군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활교양을 해들어가는 방법으로 각 단위 실정에 맞게 전개하자.

기타 더 해봤으면 좋을 사항

발대식, 해단식 준비, 농활 신문 , 유인물 제작 배포

▶마을 주체

우선 근로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성활동을 할 준비를 실정에 맞게 해 들어간다.

상황파악(마을 부녀회장님 이하 영향력 있는 아주머니 만나기/단위 교양/선전 활동)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갖추자.

(2) 학습 및 교양을 하자

■여성농민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자

우리가 연대하는 대상은 여성 농민이다. 즉, 농민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여성농민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변혁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연대하려는 여성농민들의 현실과 여성농민문제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여성농민운동의 이해, 여성농민운동의 현황과 이후 과제를 반드시 공부하고 농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의 현실을 잘 알 수 잇는 책

농민 이야기 주머니/ 여성학강의 중 여성농민 부분/ 여자는 왜 중/ 암탉이 울면 중/ 여성농민 위대한 어머니/ 여성농민(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자료)/ 여성농민의 현실(시청각)

여성농민과 여성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비디오 - 안토니아스 라인

■농민문제의 본질고 농민운동의 현황 및 과제를 공부하자.

농업이 왜 중요한가? 농민운동에 대한 제반의 이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농민문제를 꼭 숙지하고 농활에 임하자.

한총련 농활관련 문건/ 통신란의 게시물 및 자료실의 농활관련 자료/ 전농의 자료 농민시대/녹두꽃

■농활연대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올곧게 세우자.

우리가 왜 농촌활동을 하는지,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닌 농활의 중요성과 변혁운동에 있어 두 주체간의 연대활동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합시다. 여농과함께 기간의 농활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와 극복과제, 목표설정 등을 해봅시다.

가능하면 하루정도 전체 농활학교를 여학단위 자체적으로 준비해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여성농민회 및 농활 예정지 답사, 여성농민회 활동하는 선배들로부터 직접 강연, 예전에 여성농민반 활동을 잘 전개했던 선배들로부터 들어본다든지 딱닥한 문건 위주의 내리먹이기식 교양이 아니라 참신하고 일꾼들에게 생생히 농활을 가고 싶어 못 견디게끔 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봅시다.

(3) 사전답사 활동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직접 가서 실정을 파악하고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실질적인 농활을 준비해 봅

시다.

■농촌지역 여성농민 조직 상황에 따른 답사 방법

해당 군, 마을에 여성농민 조직에서 주체가 꾸려져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마을답사활동에서부터 여성농민 주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 주체들까지 참여한 군여농학 연추회의를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각 조직의 주체들이 만나서 회의 체계를 만들고 이 속에서 농촌 전반에 관한 것을 공유하고 계획합시다.

여성농민 조직이 있어도 준비를 안하고 있거나 여성농민 활동가 개인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여성농민 활동가를 적극적으로 만나며 조언을 구하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농촌의 계획과 목표를 같이 수립하는 속에서 여성농민운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성농민 조직이나 활동가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분반활동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거나 진행이 잘 되더라도 여농의 강화로 귀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목표로서 여성농민연대사업을 함께 중요하고 이끌어 나갈 아주머니 한 분(부녀회장님이면 더욱 좋다)이라도 세워 내어 이후 후속작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도여농 활동가를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조언 받고 이후 총화까지 도여농으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답사내용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후 똑같은 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 농촌주체가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농민 답사 조사서 첨부

유의할 사항은 답사 시 그 마을에 여성농민회원이 있을지라도 우선은 부녀회장님과 이장님을 만나서 활동의 공식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녀회장님과 이장님의 권위를 높여주면서 더 많은 정보와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을답사내용을 중앙으로 총화하여 여농에 알려주어야 이후 여농에서도 조직현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여농학 연추회의를 가져가자

여농학 연추회(여농-학 연대사업 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여성농민과 학생간의 만남에 대해 책임지는 장이 여-농학 연추회의입니다. 농촌을 통해 여성농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나고 목적 의식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여농학 연추회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여농학 연추회의가 굳건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도에서 농촌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나 간담회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농촌 뿐아니라 일상적인 여-농학 연대의 내용과 방법까지 내올 수 있도록 결합력을 높여봅시다.

도여농학 연추회의

■ 구성

여성농민 : 군여성농민 조직의 농학연대 사업 담당자(조직의 연대사업 부장이 없는 경우 조직의 실무 책임자)

학생 : 각 학교별 여성농민 연대 사업 담당자 (단대별 일꾼, 지역 주체 참여)

여대협과 여농이 함께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연추회의를 진행해본다.

■내용

농촌의 방향성 및 목표 공유 및 경정

도여성농민 조직상황 공유 및 집중지역 설정

도여농학 연대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

발대식 및 해단식 등 중요한 일정에 대한 공유 및 계획

■일정

1차 대표자 회의(1차 회의 전) 도여농학 연추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내용 준비

1차 회의(봄 농활 전) 여농과의 간담회의 자리 및 간단한 교양

1차 회의 (봄 농활 전 또는 직후) 1999년 여농학 연대사업 목표 설정,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성농민운동, 여성농민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양, 군 단위 주체와 만남의 장

2차 회의 (여름 농활 수행 전) 1차 회의 내용 진행 점검 및 본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3차 회의 (농활 수행 후) 농활에 대한 평가 및 후속작업

군여농학 연추회의

■구성

여성농민 : 군여농 집행부, 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군 책임자 및 개별활동가, 있다면 마을주체까지

학생 : 군 주체와 팀 별 여성 농민연대 주체

■내용

팀별 여성농민연대 주체 교육 및 학교별 분반 교육, 내용 일정 계획

마을별 상황 점검과 조사

마을 배치 및 집중 마을 선전

일정별 프로그램 계획 및 마을 순회 교육 일정 결정

평가 및 후속활동 계획

■일정

각 군의 상황에 맞게

마을 여농학 연추회의

현재 여성농민회나 학생주체의 역량상황으로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회의는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근본적인 농학연대의 기본단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이다. 활동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모범을 창출하자. 마을의 현안 사업 및 농활 수행의 내용(근로 활동, 마을 잔치)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업평가와 결의도 총화해내자.

■일정

(5)농활 때마다 농활 직전 회의와 직후의 평가회의를 가진다.

목표 수립과 활동 내용의 준비

위는 농활의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입니다. 농활지역마다 단위마다 곳곳에 상황이 다를줄로 압니다. 단위의 상황에 맞게 목표수립과 활동의 내용을 만들어 봅시다.

5농활가서의 활동

(1)본활동

1) 근로활동

근로활동 시 작업태도는 이후 농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영향을 준다.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인 만큼 성실히 임하고 일만 하는 작업 분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을 전체의 분위기, 의식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잇는 방도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근로시 얼굴을 익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아주머니는 확실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신다.

■점검

아침시간 그날 근로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를 논의하고 저녁식사 후 내용점검과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한다. 여성농민분들과 긴밀한 결합을 위해 작업을 정할 때 밭일을 택한다거나 새참준비를 함께 하면 좋다.

■활동방법

작업 시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이야기하면서 일을 한다.

이야기 주제는 무겁고 토론이 필요한 주제보다는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가벼운 소재가 좋다.(가족상황, 농사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유도하는 진행의 미를 발휘하자.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성농민입니다.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인정많고 따뜻하게 우리 농활대원들을 챙겨주시고 관심가져주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여성농민반 활동은 별도로 진행되는 분반활동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여성농민분을 만날 때 마다 친근하고 존경심을 담아 어머니처럼 대하고 어머니들의 성실함과 따뜻함,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배우는 자세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가부채와 협동조합 개혁, 미국과 IMF를 반대하는 내용도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농민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농사일 뿐만 아니라 평소 여성농민들의 몫인 가사노동도 함께 하고(남학생도 물론) 이야기도 많이 들어드려야 겠습니다.

2) 호별방문
마을을 전체적으로 나누어 돌면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과 특히 아주머니, 할머니와 인사 나누고 농활 왔음을 알리고 제기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낸다.
이때 특히 여성농민연대주체는 아주머니 이름과 집들을 명확히 파악해두고 다음에 왔을 때 꼭꼭 인사한다.

3) 농활대원 교양
여성농민반 분반원들 외의 다른 농활대원들은 여성농민의 삶이나 현실이나 그 분들이 어떻게 투쟁하고 계신지 잘 모르고 여름농활기간을 보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전체 농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의 처지와 어려움을 모르고서야 절반의 농활만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저녁 학습과 교양시간에 반드시 여성농민의 처지와 특성, 투쟁과제 등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짧게라도 진행합시다. 여성농민반 주체가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여성농민회 회원이신 여성농민 한분을 초청해서 교양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활대원이 모두다 농촌 여성의 삶에 대해 한번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식민지 여성의 삶이 도시와 농촌이 다르지 않음을, 아니 농촌이 더 어렵고 힘겨움을 깨닫게 되어야겠습니다.

전체 농활 분반활동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잡을 때 반드시 성폭력 관련 교양·학습을 진행합시다.
농활기간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인해 농민과의 연대의 꽃인 농활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조심스러운 문제이니 만큼 군여농과 잘 연대하고 각학교 총여학생회 그리고 여성연대단체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일 것입니다. 생활수칙에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 과장되어 편견과 선입견을 낳을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루도록 합시다.

4) 분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프로그램을 잘 고민해야만 좀더 좋은 내용을 여성농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안 : 성교육, 기체조, 수지침, 노가바, 비디오 상영, 여성농민가 배우기 기타 등등 마을별 성향에 따라 잘 골라서 계획합시다.
추후 더 자세헤 제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참신한 활동을 기획해보자.
소규모 마을 잔치나 어린이들을 데리고 하는 일일 학교, 하루 엄마 되기, 저녁에 집안 일 돕기 등등 가능한 활동을 기획해보자.
마을의 처지와 조건, 농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과 내용을 탄력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힘들고 지쳤을 때 규율을 유통성 있게 적용하여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배치한다.
농활의 공동체적 삶을 느낄 수 있는 것부터 농활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서로에게 편지 쓰기 , 마니또 게임, 피드백 게임, 부모에게 편지 쓰기 등을 벌여봅시다.

농활수행의 결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시, 소설 등의 문예형식을 통해 노동의 관점, 민중의 삶, 품성을 각인 할 수 있도록 하자.

여성농민반 활동시 유의 사항

☞여성 농민을 대상화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지 않겠어요?" "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설명이나 강의식의 대화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조급성과 여성 농민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학생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모순들을 더 명확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자식이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자.

이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OO는 참 개구쟁이지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나 "낯에 보니깐 아저씨가 참 호탕해 보이시더라구요. 근데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나요?" 로부터 가사 분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게 한다든지 등등으로 따분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반활동 준비는 땐실하게 그러나 일정은 융통성있게 합시다.

여성농민의 현실이라든지 각 마을 부녀회나 각 마을 상황을 미리 조사하고 준비를 땐실히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과정에서 아무리 완벽한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도 학생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성농민반 활동입니다. 우리가 일정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한 번의 일정이 어긋났다고 해서 다음 일정을 방기하지는 맙시다. 어떤 활동이든 의연하고 융통성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마을 잔치 준비 잘하기

마을 잔치는 자칫하면 여성농민들을 음식준비만 하고 남성농민들은 노는 분위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음식준비는 가능한한 농활대원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요 마을 잔치가 여성농민반 활동의 1차 총화지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분반 활동을 할 때 여성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극,노래,몸짓 등을 함께 준비해서 마을 잔치에서 발표합시다. 마을 잔치가 보다 내용성있고 여성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머니들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6)마을 신문에 여성농민활동에 관한 내용 넣기

여성농민반 활동 이야기, 여성농민의 시나 글, 여성농민의 삶을 담은 글 등도 좋겠지요

7) 여성농민 회원들에게 자료 챙겨 주기

농활 티 선물, 전여대협 티 선물, 총여학생회 및 지역여대협 전여대협 자료, 자민통 신문, 한총련 탄압사례등의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꼭 자료 챙겨 줍시다.

8)중간 평가를 반드시 진행합시다.

여농활 활동의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이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 가기 위해 진행합니다. 그곳의 부녀회장님의 의견도 중간 중간 만나면서 들어 봅시다.

(2)연대활동

연대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제안하여 여성민중농활을 실현합시다. 노농학 연대는 아직 많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서 같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으나마 이후에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시다.

특히 전남대의 농활준비처럼 여성의 전화와 여성농민회 그리고 여학생회가 함께 연대하여 성교육을 준비하는것도 매우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3)선전활동

1) 장날 선전전

농활기간중 큰 장이 서는 날에는 여성농민반원들이 각 마을마다 한명씩 나와 선전단을 꾸려 장날 선전전을 진행합시다.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합니다.

2) 마을 선전

대자보, 농활 신문, 유인물 나눠주기

- 여성농민회 선전
- 여성농민들의 삶,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
- 농축산물 가격보장 및 농어촌 교육 특별법제정 및 투쟁의 내용

가능하면 아주머니들이나 늙으신 분들도 볼 수 있는 대자보나 한자 프랑 유인물 등을 미리 준비하여 마을 별 부착 또는 배포한다.

학생들의 유인물이나 선전물을 돌릴 때 반드시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의 허락을 받도록 하며 어투, 내용 등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제작한다.

마을마다 있는마을 방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것도 유력한 방도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멘트를 구성하여 농활 기간에 방송해 봅시다. -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미군범죄 및 성폭력

(4)선언운동

이번 농활기간에 여성농민회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 선언운동을 함께할 것을 전여대협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언운동의 내용과 형식은 뒤에 더 자세히 제출

(5)7월 4일 ,7월 8일 농활 해단식에 여성농민들도 총 집중합시다!!]

분반활동의 총화지점은 1차적으로는 마을 잔치가 되겠지만, 최종 총화지점은 7월 8일 해단식에 우리 여성농민들을 최대로 조직화하여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여성농민들만의 자리도 만들 것입니다.

마을마다 똑같은 노래 1곡을 배워서 그때 다 함께 나가서 노래공연을 할 것입니다. 여농반 활동을 하면서 여성농민들에게 알려주고 노래를 다 배울수 있도록 합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도 알려내고, 여성농민들의 힘도 과시하면 좋겠습니다.

(6)생활수칙내용

술은 취하지 않도록

혼숙 금지

개별행동 삼가

복장 단정히

기타

(7) 이럼 이야기들을 해보자.

▶지금 정세에 관해

지금 정세라고 해서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들로 시작해보자.

주한미군의 범죄 및 매향리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폭력문제

▶농업, 농민 문제에 대하여

지금 농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들어보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여성농민회의 올 한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다. 어머니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들도 많이 아는 내용이므로 직접 문제에 대해서 이

아기하도록 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자.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어떻게 농촌으로 오게 되었는지, 처녀 때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셨는지, 시집살이는 어땠는지, 산후 조리는 잘 하셨는지, 아프신 곳은 없는지 등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 대답을 하시면 구체적 상황과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님들이 그 동안 살아오신 그 모든 생이 이 땅 다른 여성과 다르니 않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 해봅시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역 특성상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왜 농활을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자신이 농활 오면서 세웠던 목표나 일하면서 느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전의 투쟁 경험이 있는 곳이면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농민대회나 그 외 투쟁에 참가해 보셨던 분이 계시면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투쟁의 성과를 확인해 보는 자리, 농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모습에 대해 동조하며 이후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8)평가활동

평가서는 매일 일과 후 대원들과의 평가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활동에 반영한다.

평가한 내용은 작성된 보고서를 여성농민조직 중앙 또는 주체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모든 농활 일정이 끝나면 군, 도여농학 연추회의를 소집하여 올 여름 농활 평가를 실시해 반드시 사람으로 다음연도에 남길 수 있도록 합시다.

(9)후속활동

▶농활 수행 후 여성농민주체와 반드시 평가작업을 거치도록 합시다.

▶농활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난 중요한 발굴된 여성농민등 갖가지 이야기들을 모아 선전물을 발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을 분들께는 농활 기간 느낀 점이나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동봉하면 좋습니다. 이후 마을의 부녀회장 및 영향력 있는 아주머니에게 안부전화를 취하면서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여성농민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볼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보내줍시다.

▶가능하면 단위 축제나 행사 때 초청사업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주말농활이나 답사를 준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농민반 주체를 발굴하고 주체자에 대한 후속작업이 중요합니다. 해단식 때 활동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농활신문에 직접 투고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체모임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6 2천년 여름농활 핵심과제

이번 농활 때 이것만을 꼭

(1)여성농민연대 주체를 세워내자

무조건 세워내라 식이 아닌 여학단위가 없는 단위는 농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과회장, 단대회장님과 만나면서 교양하고 직접 사람을 발굴 꾸려가 봅시다.

특히 핵심 일꾼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후 단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농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언제부터인가 농활가는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요즘은 몇 개 과가 함께 가거나 아예 사정상 농활을 진행하지

않는 과가 나올 정도로 조직화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농활을 여학간부 전원 참가 및 여학단위가 주도적으로 신청서를 만들고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학생회의 조직역량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학우 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단위를 발동해 봅시다. 운동의 대중화라는 구호에 걸맞게 농활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봅시다.

(3)농활에 구체적인 단위별 계획을 세우고 모범을 발굴하자-1학교 1모범단위 발굴

전국적으로 농활지역을 총화하다보면 여성농민반활동을 성과적으로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주체의 준비정도가 미약하다 보니 전단위가 모범적으로 농활을 준비해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단위를 선정하여 (여학, 여농모두 잘 꾸려진단위를 중심으로) 여성농민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4)선전물을 적극적으로 기획, 부착하자

만화나 재미있는 내용의 선전물을 기획하여 부착하도록 합시다.
반쪽이의 일기나 여러 잡지에서 정신대,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글과 내용을 발췌하여 만들어 봅시다. 농활대원들은 가슴에 예쁜 명찰을 달고 다녀봅시다.
전여농에서 나온 선전물과 도여농과 여대협이 함께 준비한 회보를 적극적으로 배포합시다.
-전여농에서 이번 농활기간에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어촌 교육 특별법제정관련한 대자보 배포
전여농 선전비디오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관련한 설문지
농어촌 교육 특별법제정관련 서명제출

(5)농축산물 가격보장,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여성민중 생존권 사수, 주한미군범죄근절,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및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선언운동

1)선언운동의 대상
-여성농민회활동가중심으로
2)언운동기간
-8`15때까지
3)언운동의 방식
개별적 활동가를 중심으로 선언운동의 내용을 함께 해설하고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8`15통일 축전에 총화할 내용
선언운동용지 및 내용은 별첨
선언운동에 관하여서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논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농활대원 1아주머니 결연 운동

농활기간동안 딱 한사람의 여성농민만이라도 안면을 트고 이후 연락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이후 농활 때 다시 찾아뵈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부터 농활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7)농활교양이 핵심입니다

실지로 농민들을 많이 만나 교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활대원들에게 여성농민문제에 대한 교양을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진 내용으로 여성농민의 과제 및 당면정세에 대한 교양을 핵심적으로 진행합시다.

(8)농활에서 모범적인 여학간부가 됩시다.

평소때 밭 한번 제손으로 차려 먹은 적 없는 여학우들이 농촌활동을진행하면서 많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피곤하다, 얼굴 탄다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내비치기 보다는 자신의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주위 일꾼들을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챙기면서 진정 여학일꾼의 참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농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농활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 주체적인 자세/ 농민의 품성과 계급성, 인생관 체득/

사색, 토론하는 자세/ 농활은 여타 사업과 연속된 것이며 기간 사업의 총화지점이다.
농활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자.

(9)평가를 꼭 진행합시다.
평가만이라도 잘하고 반성을 실천적으로 반영한다면 농활이 성과적이 아니될래야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꼭 평가하고 평가서를 제출합시다.
그리고 평가의 과정을 여농과함께 진행하여 이후에 더욱 나은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 봅시다.

[7].시기별 활동지침

1시기 (6월 12일 - 18일)
[1] 마을별 주체 목숨걸고 세우기!
- 각마을별 주체를 세우고 도(군) 여농학연추회의전에 각학교별로 여농추제 회의를 진행하여 각마을별로 상황을 총화하고 마을에 맞는 활동을 논의할 것.

[2] 도(군) 여농학연추회의 성사시키자!!
각지역별로 도여농학 연추회의를 진행하여 그속에서 농활의 목표를 내오고 선언운동 내용을 풀어봅시다.

[3]전국농연사일꾼 전진대회
한총련에서 전국농연사 일꾼 전전대회가 6월 16,17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안에서 농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양과 해설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여농반 주체들도 함께하여 농화의 혁신과 대중화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봅시다.

참가대상
각 대학 농활주체까지
가능하면 군별주체까지 참석했으면 하구요
여농학연대 및 분반활동 관련한 고민을 함께 토론하고 교양하는 자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3] 프로그램 준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때문에 각 학교 여농주체는 마을 상황을 꼼꼼이 총화하고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들 성교육, 기체조 미용관리 강사 섭외
[4] 군연추회의때 각 학교 여농주체는 여농회분과 함께 참석하여 여농반 활동에 대하여 총화하시길 바랍니다.
[5]1차 답사 진행
[6]학내선전 진행

2시기(6월 19일 - 25일)
[1] 중앙에서 나오는 자료집을 바탕으로 각학교별로 자료집 만들기
[2] 중앙자료집이 나오면 각학교 여농주체는 마을 여농주제회의속에서 철철히 교양하기.
[3] 2차 답사
마을 여농회분과 부녀회장님께 직접찾아가 인사드리고 여농활동에 대해 상의하기.
직접찾아가기 어려운면 안부 인사라도 드리기.
[4] 여농주체들의 필수 교양 .
[5] 준비농활학교때 해야할 교양 준비 - 여농회분께 교양 지원등.
[6] 프로그램 구체적 점검 마련

3시기 (6월 26일 - 6월 28일)

마지막 점검
유인물 및 선전자료 챙기기
조직화 점검
분반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실무준비
교양활동

4시기(6월 29일 -7월 8일)
[1] 선언운동을 중심으로 활동.
[2] 각학교여농주체는 마을별 연락망을 꾸릴것. 이후 중앙으로 총화.
[3] 군단위별 여성농민 신문제작하여 농활기간중 배포. 내용은 여농회와 상의-주한미군범죄분제 및 성폭력 문제, 일본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남북공동 해결, 반여성, 반농민정권 김대중정권 퇴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내용을 기본으로 신문제작.
[4]중간평가 진행(가안)
[5]각 마을별로 여농회와 간담회를 진행 할 수 있게 자리 마련.
[6]여농주체가 책임져야할 주의사항을 농활기간중 철철히 책임지고 지도.
[7]해단식때 여농주체나 여농회에서 우리 내용을 가지고 정치연설 진행.

4시기 (7월 9일 - 8월 15일)
[1] 평가회의
[2] 일상적으로 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여농회분들께 연락드리기
[3] 여농회분들께 자민통 신문등 유인물 보내드리기.
[4]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실현을 위한 99 통일 대축전과 10차 범민족대회 초청사업 진행
(이후 방중 사업 계획에 자세히)
지역 통일축전 초청사업과 함께
[5] 여농회분들과 힘다지기 자리 마련(가안) - 평가회의 속에서 이야기 해 봅시다.

[8]교양자료

1]연대사업이란무엇인가

1. 연대 사업의 중요성

(1) 광범위한 계급, 계층을 결집시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서(더 쉽게 말하면 어떤 주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싸우고자 하는 대상과의 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민중들에게 끝없이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그 대가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적대적 대상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무기는 실로 엄청나고 강고해 지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하나 민중들 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탄압 받는 계층은 단순히 하나, 둘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 계층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급 계층의 역량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지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지반 하에서 각 계급계층의 계급적 처지와 계층적 요구,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고 제국주의 세력과 민중을 억압하는 제 대상에 반대하는 운동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확고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변혁에 조금이라도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계급계층을 하나로 묶어 세우며 또한 그 단결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 운동의 주력군을 중심으로 보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혁역량 편성을 성공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 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 계급계층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나누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주력군으로

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으로 편성하면 나머지 계층을 보조역량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나누는 기준은 그 계급과 계층이 변혁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의 문제로 나뉘게 됩니다. 역량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을 중심으로 보조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면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면서 보조역량을 묶어 세우는 것이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력군을 튼튼히 세우는 것 속에서 광범위한 계층들을 묶어 세우면 반대세력을 더욱 더 고립시킬 수 있고 변혁운동의 주력군에 대한 반대세력의 탄압과 공격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으며 변혁역량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민중들의 요구를 단순한 계급, 계층의 당면한 요구에서 민족적 요구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치와 구호는 바로 반미자주화 일 것입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단순한 당면한 그들의 요구만을 중심으로 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요구, 민족적 요구로 상승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천년 연대사업의 중요성

2천년은 운동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범민족대회를 성황리에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치뤄낸이 후 각 계급계층이 통일에 대한 그리고 매항려 문제를 위시로한 기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분노를 담아 반미투쟁으로 전단위가 망라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중대회의 큰 주제가 반미이고 이북에서 제안한 전민특위사업을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위가 함께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의 호조건과 더불어 2천년은 김대중 정권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해입니다. 잠시나마 정권교체, 국민의정부라는 허울 속에서 우리 민중들이 일말의 희망을 걸었었지만 정준이2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민중들의 삶은 그야말로 핍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더욱 파탄 나고 굴욕적인 혹상 속에서 나라의 주권이 외세에 의해 야금야금 좀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의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민중들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대세력들은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참여와 투쟁포기를 얘기하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국심을 앞세운 고통분담의 교묘한 논리에 속지 않고 민중들의 고통과 그들의 요구를 중심에 두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우리 사회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볼 줄 아는 눈과 간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민중적인 합의와 그 속에서 나온 힘을 바탕으로 투쟁하는데 있어서 강위력한 연대사업, 일상적인 연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해입니다.

2천년은 전민중의 반미투쟁의 정세속에서 미대사관 항의방문 및 진격투쟁 농성들이 노동자, 청년학생, 빈민, 농민이 결합되어 정권을 향한 투쟁을 강위력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 및 신자유주의 반대 고용안정의 내용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전농에서도 농업사수를 위한 농민대회와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기간 청년학생운동과 다른 전선운동단체들과의 오해와 불신을 씻어버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연대운동을 강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학단위도 광범위하게 망라된 여성운동조직가운데서 노, 농을 중심으로한 기층민중과의 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사업의 원칙

(1) 주력군 역할을 높이는 기초 위에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중간층 세력들을 결속시켜야 합니다.

변혁운동의 주력군이 노, 농, 청의 연대를 강화하는 속에서 주력군의 역할을 높여내고 애국적이며 민주적 지향을 가진 도시소자산가 계층,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 등의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중간세력을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2) 연대사업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연대사업에서 경계해야 할 편향은 첫째, 대중을 무시하는, 협애한 계급적 편견에 사로잡혀 노동자, 농민만을 대상하면서 반미자주의 깃발아래 능히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들과의 접촉까지 꺼려하는데서 나타난다. 우리의 연대사업은 계급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정치권력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따라 규정되며, 우리의

연대사업은 계급동맹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연합이다.
둘째로는 계급적 원칙을 떠난 우경 투항주의의 조류인 개방주의다. 개방주의는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덮어놓고 뭉치자고 하면서 연대사업의 문을 열어놓기만 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연대사업은 변혁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 민주세력들 사이의 단결과 합작이지, 적아의 구분이 없이 대동단결의 오합지졸이 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변혁의 입장에서 멋과 적을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4. 연대사업의 원칙적인 방도

(1) 연대사업의 주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자기단위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상층의 연대사업과 더불어 기층의 연대사업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4)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보다는 공동의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을 해야합니다.

2]여성농민 관련 교양자료

[여성농민의 삶과 자주적 여성농민운동]

1. 들어가는 말

여성농민 운동과 여성농민에 대한 이해는 농활을 통해 여성농민을 만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다.
여성농민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순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여성농민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그 삶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여성농민반 운영의 중요함을 담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여성농민의 현실과 지위

1970년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WTO체제하의 개방화 정책에 이르기 까지, 농업부분의 일방적 축소와 희생만을 강요해 온 역대 정권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이농인구가 속출하였고, 재촌탈농 또한 증가해 왔다. 특히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의 개방과 농업축소정책이 전면화 되어 그에 따른 수매가 동결로, 쌀농사에 대한 의욕마저 감퇴된 농민들의 농업포기로 인한 농지감소가 급증하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농정 품목 즉, 과수, 원예, 축산 등으로의 무계획적인 작목전환으로 말미암은 농지의 용도전용 또한 농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쌀값파동, 뒤이은 식용쌀 수입조차, 사과, 포도 등 과수작목의 가격폭락, 하우스 원예작물의 가격 불안정, 최근 소값 파동의 조짐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의 영농에 대한 불안심리와 정부농업 정책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포기, 농민말살의 반농민적 정책속에서 이나라 최하층의 농민, 그 절반인 여성농민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1) 여성농민들의 농업노동부담이 과중하며 더욱 증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부터 농촌의 청장년인구가 대거 이농함에 따라 농촌노동력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따른 노임상승으로 고용노동이 감소되고 대신 가족노동이 강화되면서 농민의 아내인 여성들의 영농참여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1965년에는 가족노동 중 여성의 비율이 30.3%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에는 45.7%로 남자들과 거의 같은 정도로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과 품앗이 노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들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에 여성농민의 농업노동시간은 1966년에 3시간25분이던 것이 1986년에는 11시간 21분으로 증가하여 농번기 여성농민의 노동은 도시 근로여성과 비교하더라도 엄청나게 과중하다. 또 농업경영 형태가 미곡위주의 생산방식으로부터 환금성 작물생산과 축산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농촌에서 농한기 개념이 사라지면서 여성농민의 노동량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채소나 특용작물, 하우스작물의 경우 벼농사에 비해 여성노동 투하비중이 높게 되고 미곡과 달리 좁은공간에서 수많은 단계의 작업과 단시간에 많은 노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여성의 노동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여성농민은 농가경제내에서는 농가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주체로서 국가경제 전체로 볼때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서 생산활동의 참여도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농업을 유지해 온 절반의 생산동력임에 틀림없다.

2)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농가경제의 악화, 농업노동의 질적 변화는 여성농민으로 하여금 장시간 힘든 자세로 노동함으로써 오는 요통, 어깨결림, 신경통, 손발저림과 같은 소위 농부증이라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약, 농기계 사고의 위험에 항시 접해야 한다. 또한 산전산후 조리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농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만성적 부인병을 호소하는 여성농민 또한 많다. 더우기 최근에 하우스 농사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건강악화는 날로 심각해져만 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의료시설은 열악하며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종합병원, 전문의원 등의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음에 비해 지역의보로 묶여 있는 의료보험의 부담을 가중되는 등 건강복지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농기계의 악화와 농업노동의 증대는 건강의 악화뿐 아니라 여가를 즐기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 여유는 물론, 자녀교육과 육아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게 만든다. 따라서 직업으로서 농사일에 대한 애착은 대부분 여성농민의 경우 아주 낮은 편이다. 스스로의 일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에게 농사일을 승계시키려는 의사도 거의 없다. 따라서 후계를 키우려는 노력은 커녕 오로지 농사꾼 신세를 대물림하지 않기위한 방도로 자녀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대도시로의 유학, 하숙 등 교육비 부담 또한 가중된다.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여성이 없는 현실을 해결하고 농업의 발전을 담보할 후계인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도 복지현실 문제는 심각히 고려 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3)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여성농민은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게 되어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이 도시 취업여성에 비해 더욱 크다.

과중한 농업노동 참여와 함께 농가의 재생산 노동, 즉 가사노동 또한 여전히 전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여성농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이로인해 부부간, 고부간 등 여러가지 가족문제 까지도 발생한다.
앞으로 농업경영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문제는 가족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여 여성들이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즉 탁아, 가족내 노인부양, 방과후 아동보호와 과외활동 등의 복지대책 내용 필요).
또한 가족내에서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여성(부인, 어머니)의 직업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해와 의식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가사노동의 역할 분담). 직업과 집안일이 혼재되어서는 여성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소기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농민들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전문화된 농업경영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4)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나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절반의 농업생산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농업보조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영농활동에 있어서 농사일정과 품종선택, 영농자재 구입, 노동력 조달, 농산물 판매, 농지구입, 매각 등에 관한 계획과 의사결정이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동력만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농작업에 있어서도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부진하며 여성에게 부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이 농기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며, 여성농민의 노동력 또한 낮게 평가된다.
영농교육이나 농기계 구입보조, 정책자금 지원, 농협조합원에의 참여, 영농법인 설립에 있어서도 여성은 배제되어 전문영농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지 못하고 농가라는 경영단위의 보조자로 매몰되어 여성농민 개인의 경영자로서 가족내 인정과 지위는 물론 사회적 지위 인정 또한 얻지 못하고 있다.
가족경영이 주된 형태인 우리나라 농업구조하에서 여성농민들이 농가경영에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내야만 가족농업은 발전할 수 있으며, 여성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생산자적인 지위와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5)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가부장적 봉건의식의 뿌리 깊이 남아 있는 우리 농촌사회는 오랫동안 마을을 비롯한 지역사회활동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제외되어 왔다. 이제 농업은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산업으로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볼 때 여성들의 역할과 사회참여야 말로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 버릴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내의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는 균형있는 사회발전, 농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현재는 여성들이 조직된 힘이 미약하고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한 형편이나 여성들이 사회참여 영역을 넓히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적 배려와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여성농민 문제의 본질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여성농민은 역대 정권의 희생농정과 최근의 WTO하 농업 구조 조정에 이르기까지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을 과중한 농업 노동 참여로 떠받쳐 온 농업 생산의 절반의 동력이며, 농업 유지 발전에 있어서 절반의 주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나 생산자적 지위나 금리, 복지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과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농민 문제의 본질을 보다 더 깊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농민 문제의 본질
① 외세와 자본은 WTO하 농업 구조 조정 정착으로 저임금 구조 유지의 기반이 되는 저농산물 가격 정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려 한다.
② 일관된 농업 희생 정책으로 재촌탈농, 이농이 증가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가 경제의 약화는 결국 여성농민까지 과중한 농업 노동으로 끌어들이고, 여성농민들의 과중한 노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어려운 농가 경제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③ 즉 자본은 여성농민이 농업 절반의 생산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농에 맞는 생산 조건과 수단, 인력 개발비용, 모성보호 비용, 복지 비용, 사회 참여 확대등 생산 주체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여성노동을 보조 노동 수준으로 격하시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④ 또한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여성농민을 여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 가족을 위한 사랑 봉사, 여성의 본분이라는 가부장적 봉건의식 유지를 통해 재생산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챙긴다.
⑤ 생산 판매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은 가부장적 성차별 의식을 이용하여 자본과 여성농민과의 관계를 호도하고 조직화를 어렵게 만들고 부부간의 갈등을 만듦으로써 전 농민의 불만을 희석화 시킨다.
즉 여성농민의 무보수 가사 노동과 무소유, 무권리의 과중한 농업 노동이 있음으로 해서 WTO하의 저농산물 가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자본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저임금 정책의 토대로 이용한다.

여성농민문제란 이처럼 농업 모순과 여성문제가 결합되어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성차별을 이용한 고도 수탈) 농민의 일반 문제 해결이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이나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 여성농민 운동의 방향과 내용

여성농민운동의 궁극적 방향은 여성농민 억압 구조를 깨뜨려 가면서 반외세, 반독점(자주,민주,통일)의 사회 운동에 주체가 되는 것, 즉 여성농민이 초인간으로서 자주성 회복과 고양, 자기 주권 획득 과정을 통해 역사 발전의 주체로 서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위한 여성농민운동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올바른 농업 발전, 민주 사회 발전을 향한 여농대중의 생산 주체화를 실현해 내는 것, 둘째, 생산 주체화를 위한 토대로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복지 향상, 사회 참여 확대를 실

현해 내는 것이다.
여성농민운동은 이러한 방향에 섬으로써 전체 농민운동의 총량을 높이고 나아가 전체 민족 민주 운동에 바르게 기여하고자 한다.

5. 자주적 대중 조직으로서의 당면 과제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올바로 실현해 가기 위해 여성농민의 자주적 대중 조직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전여농은 자주적 대중 조직체로서
첫째 여성농민 대중의 현실로부터 출발, 문제 해결과 모순 극복을 위해 다수 대중의 이익에 입각한 올바른 방향에 서고자 한다.

둘째,여성농민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여농대중이며, 여농대중 스스로의 주체적 자각과 문제 제기로 대중성을 확득해 가며 대중이 주체가 되는 조직으로 서고자 한다.

셋째, 조직 성원의 자주적 참여와 주체적인 지도력 단련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주, 자립적 조직 활동 속에서 여성농민 대중의 주체성, 자주성 회복과 고양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여성농민의 억압을 풀어 나가는 과제 실천을 통해 농민운동의 총량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오랜 세월 가부장적 봉건 의식으로 인해 관성화된 비자주성, 소극성, 체념과 패배 의식, 이러한 장애들로 조직과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매우 미약하며, 따라서 대중적 조직화는 매우 더디고 성과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여성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생산에 있어 역할이 증대될수록 여성의 지위도 높아져 왔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닌 소수 선각자들의 문제 제기로 출발, 오랜 세월 지난한 투쟁 속에서 대중적 동의력을 확장시켜 내고 급기야 여러 가지 제도와 법, 의식 개혁을 이루어 낸바 있다.
최근 민족 민주 운동에서도 여성의 의식화, 조직화, 자기 삶과 가정, 사회, 세상의 절반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축적하지 않고는 민주화는 영원히 반쪽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전여농은 진정한 여농대중의 이익 실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실천으로 대중을 묶어 세우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85년 소몰이 싸움과 87,88 수세, 고추 투쟁 시기 대중적 농민 투쟁에 참여했던 여성농민은 일시에 묶어 세웠던 대중적 조직화의 경험이 호남권의 몇몇 지역에서 존재하였으나,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성농민적 관점에 입각한 올바른 사상을 견지한 활동가가 부족하고 지도력이 굳건히 서지 못함으로써 지속적 조직 확산이나 운영이 난관에 부딪쳤다. 최근 어려워진 민족 민주 운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기존 조직 역량을 지켜 내기에 급급한 형편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자주적 대중 조직으로서의 풍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조직들의 소중한 실천 성과들이 존재하며, 새롭게 조직화되는 군, 면, 도조직들도 생겨났다.
또한 여성농민개혁안 이후, 여농정책 대안의 적극적 마련과 주장으로 중앙 조직의 위상과 정치력이 확장되는 한편, 지역 단위 조직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중요한 성과를 내오기도 하였다. 이제 전여농은 새로운 정치, 사회, 농업 정세의 변화에 당면하여 자주적 대중 조직체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새롭게 결의해야 할 때이다.

첫째, 여성농민운동의 중점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관한 끊임없는 교양, 선전과 대중 적 실천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고 대중의 동의를 높여 냄으로써 여성농민 대중의 진정한 대표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활동가의 목적의식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도력과 실천력을 강화하며, 각급 조직의 지도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합법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정치력 확보 방안을 세워 조 직의 정치적 위상과 공신력을 드높여 나갈 것이다.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여성농민운동은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이 주변화되고 차별화되는 모든 조건을 극복한다는 목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본질적인 문제가 결국은 사회공동체 실현보다는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농민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조건이 서로 상승작용하여 여성농민의 질곡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민운동은 항상 전체 농업의 핵심사안을 여성농민운동의 고유한 자기과제로 인식하고 그와 함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농민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 여성농민운동의 방향은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외적 활동으로 집약된다. 식량자급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WTO차기농산물 협상에 적극적인 준비로 대응하여야 하며 계층별, 지역별,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와 가족농 중심의 농정개혁을 통해 대다수 중소농의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마련과 효율적인 여성농민정책의 집행을 위한 중앙-지자체의 통일적인 업무체계, 즉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요구해내야 하고,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밭작물 직불제 실시 등을 요구해 내야 한다.

[농활과 여성농민]

(1) 여성농민에게 있어 농활은 조직강화·조직확장의 초석입니다.

·농활은 여성농민과 학생이 여성농민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모순된 처지를 타파하도록 만드는 연대사업의 핵심입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연령의 많은 여성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결합의 정도에 따라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교육·선전 등 한꺼번에 다양한 사업을 펼쳐 총체적인 조직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개별 활동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농활기간의 방문은 이후 조직사업의 재산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노동과 무시, 봉건적 억압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농민에게 여성농민회를 알림으로서 조직의 힘을 깨닫도록 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곧 농활입니다.
·생면부지이며 여성농민운동과 여성농민회에 대해 설혹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농민일지라도 학생이라는 공식적인 소개자를 통해 인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2) 학생에게 있어서 농활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피부로 느끼는 체험의 장입니다.

·전체 농민문제와 더불어 여성농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만들어가는 장입니다. 그동안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요구해 오던 민족농업 사수 투쟁이나 의료보험 통합일원화투쟁 등 농민문제 전반의 것을 포함하여 이제는 여성농민들이 특수하게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야한다는 점을 몸소 느끼고 결의를 다지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노동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배우고 학생 대중을 교양, 학생운동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뚜렷이 해야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여성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점이 담지되어야 합니다.
·10여일 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은 보완해 가며 동지로서의 굳은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학생들에 대해 불신하고 있거나 궁금해 하는 여러 문제제기들을 육친적인 친화로서 설명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농번기 동안에 방치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농민인 부모에 대한 긍지를 불어 넣어 주고 교양함으로서 선도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활에서 여성농민반 운영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 농민이란 이 땅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산의 주인, 생명의 어머니로 바로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검은 얼굴, 고목 같은 손을 지닌 우리의 친근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십니다. 농활 기간 중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여성 농민입니다. 농활중 학생들에게 가장 호의적이며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어것저것 신경써 주시고 학생들에게 반찬 한가지라도 갖다 주시려는 모습, 피곤한 몸을 누이고 싶은 간절한 생각에도 학생들 생각에 분반 활동에 적극적이시던 모습, 바로 우리 여성 농민의 모습입니다.

여성 농민들은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의 소외뿐 아니라 농민 정책 속에서조차 불평등을 느끼는 계층입니다이제 정부가 우리 나라의 식량을 자키고 환경을 지키며 통일을 대비하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 한다면 농업의 절반을 담보하고 있는 여성 농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고민과 인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의지와 정책 실현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 농촌 기본법이 제정과 더불어 여성 농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시 절실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또다시, 가장 먼저 축소되고 유보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 부분이라면 이제 국가의 미래는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 농민이 희망과 의욕을 갖지 못하는 농촌과 농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음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허리 두드릴 틈도 없이 고조선 시대에나 21세기인 지금에나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는, 죽을때까지 제대로 대접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일만 하는 소중한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짧은 농활 기간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고 어머니들의 개선될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민회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모아내어야 한다. 소리내지 못했던 여성농민의 현실을 구체화된 소리로 만들어 내기위해 여성농민반의 활동이 중요하게 제기되어지는 것입니다

① 개별화 되어 있는 여성농민들에게 집단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개인적인 것으로 호도 되었던 여성농민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여성농민들의 공동의 문제임을 선전하고 인식전환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③ 학생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성농민들의 삶과 여성농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대화를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④ 뿐만아니라 여성농민·학생 상호간의 이해를 높히고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여성농민이 노동의 최일선에 있으며 사회변혁의 일주체임을 직접 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농민운동과 여성농민회를 선전하고 여성농민 활동가와의 교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⑦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꾼들이 여성농민의 삶을 배우고 단련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천년 여성농민의 정세]

① 여성농민의 현실

무방비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파탄과 농민의 삶의 현실

지난 UR 농업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개방되었고 그 결과 농산물 수입자유화률은 99년 현재 98.3%이고 농산물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62%정도가 증가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6%도 안되는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작년 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으나 지난 UR협상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올해부터 농산물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고, 우리나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은 농업부문에 협상력을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만약 농산물수출국들이 주장하는대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관세마저 대폭 삭감된다면 2010년 안에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35%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6조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쌀생산액이 51.8% 감소하게 됨으로써 농업파탄과 식량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농업경영비 증가와 전반적인 소비부진에다 정부의 기본 농정이 영농규모화 확대에 두어짐으로써 농가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시설 투자로 과다한 차입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금리, 생산자금을 장기 저리 자금이 아닌 고금리 상호금융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악순환되면서 농가부채는 전체 28조원으로서 30.7%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는 약합니다. 개방, 자유화에 적극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한·미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APEC 조기자유화 참여 등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방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던 쌀직불제도 기획예산처에 의해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확대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결국 연기되었고, 의보통합도 지역의보가입자에 대한 50% 정부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유보하였습니다. 더구나 농촌지역 교육수준의 하향화는 젊은 청장년층의 이농을 더욱 심화시켜 연평균 7-8%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1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농촌지역 공동체는 쉽게 해체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농민의 농업생산비중의 증가와 이에 반해 여전히 낮은 여성농민의 지위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3.8%에서 98년 현재 4.3%로 급감하였고 2000년 이후 쌀생산의 지속적 감소와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농업부문 성장률은 연평균 -0.4%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부문의 비중감소는 경지면적,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업취업자수의 감소와 함께 생산부문의 구조변화도 동반하게 됩니다. 즉, 1990-1995년에 경지면적은 연평균 -1.15%씩 감소하고 농가호수는 -2.79%씩 감소하고 있지만 3ha이상의 대규모 경영농가수는 연평균 12.5%씩, 5ha이상의 경영농가수는 27.8%씩 증가하고 있어 농업경영이 규모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규모화는 식량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등 경제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작부체계의 급속한 변화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구도 98년 현재 4,399천명으로 70년 대비 -69.5%로 감소하였는데 그 중 여성인구가 51.6%이고 남성의 경우 겸업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업주종사자의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빈곤-환경악화-식량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이러한 국내농업 생산부문의 구조변화와 농가인구의 구성변화는 근본적으로 식량자급 실현과 환경보존 등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경영이 규모화되면서 평균 경작규모가 1.3ha정도인 대다수 가족농들의 소득이 보장되기 어려워지면서 젊은 농업생산인력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기간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생산을 통한 소득보장 실현, 그리고 노동복지 향상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통한 농업인력 육성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생산에서 절반이상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고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중요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영농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2월에 통과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전문인력양성이 강조되었고 여성농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영농의 보조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농업주종사인력의 여성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민은 농업경영상의 역할이나 인적자본수준에서 중심인력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1979년 유엔차원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여성농민의 생존과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신용접근권 확보, 협동조합 참여, 지역사회활동 등 각종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시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경행동강령, 세계농업기구 행동계획 등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성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농민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농이 농업의 근간이 되는 많은 나라들은 여성농민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농업과 농촌의 생존과 직결되는 정책과제로 인정하고 있고 여성농민 인력육성정

책을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여성농민정책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비교우위론적 정책에 의해 여성농민의 생존과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고, 농업생산에서의 역할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여성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어왔습니다. 또한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생활개선사업이나 복지차원의 접근이 많고, 후계자 등의 다양한 인력정책에서 공동경영자로서의 여성농민의 지위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흐름뿐 아니라 식량자급형 농업, 소득보장형 농업, 환경보존형 농업, 통일대비형 농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여성농민의 노동가치가 차별화·주변화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② 여성농민들의 투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는 여성농민이 주부가 아닌 당당한 농민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통일단결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농민에게 있어서 자주농업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신자유주의와 WTO에 대응하는 투쟁에 전체농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개방화를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모든 부문에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생산기반이나 자본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제 3세계 국가의 경우 쌍무협상이나 우루과이라운드·WTO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통상압력으로 전면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강요당함으로써 이익의 분배가 소수 선진국에게 집중되고, 국내적으로는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철폐와 기업의 민영화, 그동안 일정정도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었던 부문에 대한 보호장치의 전반적인 축소 등으로 경쟁력없는 산업, 계급·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세계무역기구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구제금융체제를 반대하는 데에 특히 문제삼는 것은 차기 WTO협상의 '다자간투자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현실화되면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각국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수행(예를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스크린 쿼터제 등 사회문화적인 필요에 따른 제한이나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등)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에 영세농이 대부분인데다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농가부채로 허덕이는 한국농업의 현실상 신자유주의와 WTO는 농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아니며 여성농민들도 이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승을 위해서 농촌지역 남녀평등의 확산을 위한 수첩제작과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여성 송년의 밤을 함께 한것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보안법 철폐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첨1.

전여농과의 간담회 결과입니다.

일시 : 반미지주화의 해 6월 10일
장소: 전여농 사무실

전여농의 여름농활 준비
6월 전여농 집행회의에서 여름농활에 대한 활동준비 논의
여름농활기간에 주요활동 과제 선정
농축산물 가격부장내요의 전여농 제출 선전물 배포
농어촌 교육 특별법제정관련한 설문지의 서명운동
전여농 알림 비디오
남녀차별의식개선을 위한 수첩제작
지역별 농활학생들과의 연대

선전의식화 내용 합의
- 현재 농축산물 가격보장의 내용
-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 한총련 탄압에 대한 내용과 이적규정 철회를 적극적으로 선전
- IMF이후 미국의 경제침탈과 민중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선전(노동자, 농민들이 단결과 투쟁에 대한 내용)
-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내용
- 일본군 위안부문제 및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내용 선전

총평 및 대책
현재실정상 공동의 내용을 가지고 투쟁하기는 많이 어렵다-공동연대투쟁의 한계.
서로의 조직의 투쟁사안을 공유하고 함께 할수 있는 선전활동정도의 수준
여학단위의 주체적인활동을 높여야 한다
군단위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단위의 상황에 맞게 진행
농활후 답사와 활동에 대한 총화를 꼭 진행하자.

★각단위에 농활교양이 필요한 곳에 농활교양 신청받습니다.

별첨2

여성농민반 마을 조사서

1. ( )군 ( )면 ( )마을
안내사람(직책, 나이, 성명):
2. ( )대학 ( )단대 ( )과 조사자( )
3. 마을 여성농민의 상황파악
1) 여성농민의 숫자 ( ), 마을 전체인구 중 비율 ( )%
2) 연령대 20대( )명, 30대( ), 40대( )명
50대( )명, 60대( ), 70대( )명
3) 여성농민의 문맹율( )%
4) 일반적 자녀수 ( )명
5) 잘 모이는 그룹이 있는가? (예, 아니오)
그 구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

잘 모이는 장소는 어디인가? (
6) 농활 기간중 마을 여성농민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는?

7) 농활 기간중 여성농민의 주요 일거리는?

4. 마을 부녀회 파악
1) 부녀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부녀회 모임의 횟수는? ( )회 모이는 연령대 ( )
내용(

2) 부녀회장의 성향, 영향력

3) 그 외 부녀회에서 영량력있는 사람 성향

5. 마을 여성농민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마을, 면, 군농민회 여성회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가?
여성농민회 또는 군농민회에서 실시한 교양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마을 여성농민의 전체적인 성향이 어떻습니까?
6. 농민회원 부인들 모임이나 젊은 새댁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7. 이전에 농활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농활경험이 있다면 여성농민반 활동은 어떻했고 마을 여성농민들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8. 마을 여성농민들에게 현재 부각되는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9. 여성농민반 활동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조사서를 꼭 작성하셔서 지역 도여성농민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